

# 최현우 “아직도 마술이 재미있어”



## 마술과 뮤지컬 조합 ‘매직컬’로 인기몰이 ‘더 셉록’ 관객과 추리하며 ‘마술쇼’ 펼쳐

까나간다. “저는 지금도 마술이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마술은 아이들이 보는 장르라는 인식이 크죠. 하지만 성인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예술 요소가 더 많아요. ‘아이들이 보는 공연인데 어른들도 보기 괜찮다’가 아닌, ‘어른들이 보는 공연인데 아이들이 봐도 괜찮은 공연’으로 만들고 싶어요. 두 말은 닮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거든요.”

올해로 데뷔 20년인 최현우는 명실상부 한국 마술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국제 마술 대회 클로즈업 부문 한국인 최초 수상자이자 가장 큰 국제 마술대회인 FISM 월드챔피언십의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3년 넘게 1000회 이상의 공연을 지속해 온 그는 마술쇼 자체만으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관객 분들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깊이 있는 철학을 원하죠. 정채돼 있으면 스스로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마술 배우기 시작한 최현우는 데뷔 20년차 유명 마술사가 됐다. 그는 “마술 환경이 어려워 힘들었던 적이 있지만 마술 자체에 사랑을 느낀 적이 없다”며 “마술에 대해 신기해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전히 힘이 난다”고 했다.

최현우는 올 연말 자신의 20년 마술 인

생을 정리한 공연이자 관객들에게 마술이 무엇인지 묻는 ‘에스크(Ask)’를 초연할 예정이다. ‘브레인’ ‘더 셉록’ ‘에스크’ 등 3개 브랜드 공연을 번갈아 올리며 시즌제를 선보인다.

“3개 작품을 장기 공연으로 만들 겁니다. 마술 공연의 단점은 돈을 쏟아 부어도 트릭이 유사하다는 공연인데 이번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세 작품의 마술이 겹치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죠.”

최현우는 현재 우리나라는 마술 문화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30~50대 분들은 데이비드 카퍼필드 식의 대형 마술이 나와야 마술 공연을 보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10~20대는 리얼리즘이 강조된 마술을 좋아해요. 생활용품 등을 통한 지적 유희를 즐기죠. 60~70대 분들은 동춘서커스를 떠올리시죠.”

“이 분들, 남녀노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는 데뷔 20년 차 마술사 최현우는 마술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써 문화 예술 콘텐츠로 편입시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해외에서 러브콜도 받고 있다. 오는 10월 상하이에서 중국어로 진행되는 마술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현우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마술의 미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며 진보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마술은 트릭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예술이 융합된 문화입니다.”

마술사 최현우(38)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마술사’로 통한다. 마술과 뮤지컬을 절묘하게 조합한 매직컬 ‘더 셉록 : 그레이트비티 503 (연출 오루파나·28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이 예다.

뮤지컬 ‘고스트’ 등 마술이 사용된 공연은 이미 많다. 하지만 마술 자체가 돋보이기도 보다 효과 또는 무대 장치로 받아들여졌다.

‘더 셉록’은 악당 제이슨의 넘버 등 뮤지컬적인 요소를 끌어오지만 마술이 전면에 나선다. 2011년 ‘사라진 마술사’를 선보인 최현우가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온 셉록홀즈 시리즈다.

이번에 뮤지컬 ‘피마 돈 크라이’ 등으로 유명한 연출가 오루파나, 뮤지컬 ‘셜록홀

즈’ 시리즈에 참여한 작곡가 최종운 등이 힘을 보탤다.

최현우는 셉록 홀즈로 변신, 관객과 함께 추리를 해나가며 이야기가 있는 마술쇼를 펼쳐나간다. 무작위로 뽑힌 관객들이 참여하는 만큼 에드리브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관객마다 떠오르는 숫자와 갖고 싶은 것, 오늘 입고 온 속옷 색깔, 키와 체중 등은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드리브는 없다. 어떤 상황도 이미 생각해놓은 경우의 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에드리브를 가장 싫어해요. 변수가 많으면 그만큼 상황 통제가 어렵고 위험해지거든요. ‘셜록홀, 과학 등 그가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더 셉록’은 지적 유희를 통해 어린이 관객 위주라는 한국 마술쇼의 편견 역시



## 전북 문화재 낭송·낭독 대회 노임순·김태경 팀 장원 수상

(재)전주문화재단 전주아행추진단과 전북작가회의·최명희문화관·애기보따리는 문화작품에 등장하는 전라북도 문화유산을 찾아 소개하고 낭송·낭독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지난 12일 오후 7시 오목대에서 가졌다.

이날 열린 ‘문학작품 속 전라북도 문화재, 낭송·낭독 대회’에서는 노임순(65)·김태경(10·지곡초2년)팀이 최기우의 희곡(은행나무꽃)을 낭독해 장원을 수상했다. 이는 전주최추진대 은행나무(전북보호수)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차상은 최명희의 단편소설(만종)에 등장하는 경기전 하마비(전라북도 유형문화재)를 소개한 이진숙 씨와 이만희의 시나리오(악숙)의 배경이 된 전동성당을 소개한 박종원·홍연우 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차하는 안도현의 시(화암사, 내 사랑)을 낭송한 김성주 씨와 김형미의 시(선운사 동백숲)을 낭송한 김이흔 씨, 한벽투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소설(청안과 부채 행상의 인연)을 낭독한 이종기 씨, 최명희의 소설(흔들)에서 오목대 부분을 찾아 낭독한 강유민 씨, 경기전과 태조어진을 소재로 한 서철원의 소설(왕의 초상)을 낭독한 이광한 씨가 각각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전라북도 역사문화콘텐츠가 한층 넓어졌다.”면서 “이번 대회는 문학작품을 통해 문화재를 재발견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얹힌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문화재단, 내일 시민문화마당 개최

### 전주는 예술이다’ 주제로

전주문화재단은 17일 오후 7시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전주는 예술이다’를 주제로 (문화지성 네트워크)의 문화정책 모듬과 시민문화마당을 연다.

문화정책 모듬의 참석자들은 예술가로 활동하며 느꼈던 예술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진행되는 시민문화마당에서는 송과나 시인의 ‘함석지 봉집’ 자작시 낭송을 시작으로 박종영 사진작가의 ‘지역예술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대표 김혜원 씨의 ‘졸탁동시·새내기 작가들 위한 문화정책’, 전북대 소화기내과 김대근 교수의 ‘시민의식과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청중들과 소통하는 현장토의도 마련된다. 마지막은 최재희 무용가가 예술인의 모습과 흐름, 몸임을 춤으로 표현한 ‘전백칠십여섯번의 물두’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시민문화마당은 문화지성 네트워크 모듬의 문화정책 모듬 구성원들이 주제 선정부터 발표자, 발표내용, 공간구상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문화지성 네트워크 모듬.

자작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진정성을 교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지성 네트워크 모듬은 재단이 출범 10년을 맞아 문화예술인을 위한 ‘비밀 언덕’이 되고 시민을 위한 ‘문화 숲’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현재 39명의 시민, 예술가,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족해 매월 한 두 차례씩 자유로운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예술진흥·생활문화·도시재생 4개 모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해은 기자

## 제6회 혼불문학상 박주영 ‘고요한 밤의 눈’



제6회 혼불문학상에 박주영의 소설 <고요한 밤의 눈>이 선정됐다. <고요한 밤의 눈>은 스페이라는 독특하고 발란 인물들 통해 감시의 눈길에 휘둘러가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그려낸 작품이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퍼즐을 맞추어가듯 조각조각 흩어진 단편들을 수습해가는 과정이 곧 소설 작법 자체가 되는가 하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작품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종래의 혼불수상작이었던 역사소설과는 달리 당대 현실을 다룬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혼불문학상의 지평을 크게 넓히는 효과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주영(45·사진) 작가는 부산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200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시간이 나를 쓴다면’으로 등단하였으며, ‘백수생활 백서’로 2006년 제30회 세계의 문학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혼불문학상은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문화훈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했다.

대상 상금은 5천만 원이며, 수상작의 단행본은 10월 초 출간된다.

혼불예술제를 겸한 시상식은 10월 7일 남원 혼불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우아한 나체들’ 사라예보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6’ 선정작인 <우아한 나체들>, (감독 루카스 발렌타 리너)이 제22회 사라예보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12일부터 20일까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열리는 사라예보영화제는 1995년 출범한 발칸반도 최대의 영화제로, 올해 경쟁부문에는 <우아한 나체들>을 포함해 총 11개의 작품이 초청됐다.

<우아한 나체들>은 아르헨티나의 폐쇄적 부층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벨렌이 우연히 비밀스러운 나체주의자 클럽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특이특이한 사건을 담은 작품이다.

루카스 발렌타 리너 감독은 “우아한 나체들이 사라예보영화제의 포문을 여는 첫 경쟁부문 상영작이라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고 뿌듯하다”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라예보 국립극장에서 작품을 관람할 생각에 매우 설렌다. 전주국제영화제 이후의 여정을 아름답게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16일>

**▷쥐띠**  
46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니 타인과 함께 일을 도모하라.  
60년생: 욕심을 부리면 실패가 따르니 조심해야.  
72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알아야.  
84년생: 동기간과 시비가 따르니 가벼운 농담을 삼가고 진지하게 임하라.

**▷소띠**  
49년생: 신상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85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

**▷호랑이띠**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성사될 수 있으니 추진하라.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 사람의 조언을 구해라.

**▷토끼띠**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니 혼자서 아님을 명심하라.  
87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용띠**  
52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라.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와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뱀띠**  
53년생: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다.  
65년생: 자신은 갖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77년생: 윗 사람에게 의존해야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집중력이 저하되니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말띠**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66년생: 지금은 지속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양띠**  
55년생: 베풀면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나친 과대성은 부작용을 불러오니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진행하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윤택한 운.  
91년생: 때로는 겸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법.

**▷원숭이띠**  
56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68년생: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는 운.  
92년생: 손윗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

**▷닭띠**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염려가 따르는 운.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히게 한다.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라.

**▷개띠**  
46년생: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변동수를 갖는 것은 흉하다.  
58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를 요하는 운.  
70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야.  
82년생: 물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실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9년생: 정신이 산만한 운이다.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8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